

##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환난 전 휴거를 받는 성도들의 모형

히브리서 11:5-6

요즘 세상이 어지럽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인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1. 하박국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2. 믿음의 정의, 3. 창조 믿음. 4. 아벨의 대신 속죄 믿음  
오늘 < > 믿음의 실체를 부여잡고 믿음의 증거로 산 두 번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창세기 강해 집필, 맥아더, 위어스비 등 참조하면서 준비하였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두 번째 영웅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에서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히브리인들에게,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확증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한 형태의 유대교 속에서 살아왔다. 그 유대교는 사람이 노력과 의식과 행위와 도덕성으로 자기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신구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벨이다.

아벨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준다. 곧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대신 속죄 희생물이 필요함을 시인하는 것이다. 아벨이 양떼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였다. 가인은 자기 손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희생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 아벨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가를 가르친다면(구원), 에녹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성화)를 가르친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한 자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걸은 자이다. 한 사람은 시작을 보여 주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작 이후의 삶을 보여 준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타락하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동행은 끊어졌다. 그런데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바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에녹의 의미이다.

### 창세기 5장의 총격

에녹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려면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5장은 매우 흥미로운 장이다. “그가 죽으니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5절: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8, 11, 14, 17, 20, 27, 31(총8회)

31: “라멕의 전 생애는 칠백칠십칠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이 죽음의 반복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죄의 결과이다. 타락의 효력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날,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음울한 장송곡처럼 흘러간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왜 그들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남(5:30),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

**그런데 갑자기 21-22절에서 무엇인가 흐름이 깨진다.**

여기서 패턴이 깨진다. “그가 죽으니라”가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한다. 에녹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 성경의 오묘함

성경의 오묘함 1

1. 아담 이후 가인의 계보, 1. 아담, 2. 가인, 3. 에녹, 4. 이랏, 5. 므후야엘, 6. 므드사엘, 7. 라멕, 가인 계보/문명의 정점에 라멕: 성경 최초의 일부다처주의자, 폭력적인 인물, 살인을 자랑한 인물,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높인 인물

2. 아담 이후 아벨 죽음 이후 셋의 계보, 1. 아담, 2. 셋, 3. 에노스, 4. 게난, 5. 마할랄레엘,

## 6. 야벳, 7. 에녹, 셋 계보/문명의 정점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 성경의 요약 2

두 계보 모두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가인의 에녹: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함. 곧 하나님 없는 문명의 출발점(창4:17).

셋의 에녹 (창 5:21):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짐.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

### 처음부터 하나님은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보여 주심

성경의 요약 3,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는 뜻이다(21절).

곧 그는 “심판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예언적 이름이다. 므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므두셀라의 죽음: 아담 이후 1656년에 일어남, 노아의 출생 아담 이후 1056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나이 600세, 그러면 아담 이후 1656년에 일어남, 즉 홍수는 정확히 므두셀라가 죽은 해에 임함 그런데 므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 5:27, 구백육십구 년을 살았다. 하나님의 공화로 인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가 사는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에녹은 자기 아들 므두셀라의 이름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정 자체가 살아 있는 설교였다.

### 에녹의 믿음의 다섯 가지 핵심

본문 히브리서 11장 5-6절로 돌아가 에녹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다섯 가지로 살펴보자.

#### 첫째 핵심: 그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다

5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짐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It is impossible* 믿음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1.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미워하신다. 종교는 진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탄이 만든 체계이기 때문이다.
2. 혈통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3. 선행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본문 6절이 분명히 말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 존재하고 계시다”(He is)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답하셨는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답하셨다.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히 자존하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 낸 신이 아니다. 어떤 다른 신에 의해 만들어진 신도 아니다.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에녹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사람이다. 동산에서 끊어진 교제가 에녹에게서 다시 살아난다.

##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과학이 보여 주는 정황 증거는 압도적이다.

첫째 증거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어떤 결과도 원인 없이 생기지 아니한다.

시계는 시계공이 만들었고, 집은 건축자가 만들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간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침내 우리는 '원인 없는 원인'에 도달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둘째 증거는 설계이다. 우주의 모든 곳에 지성적 설계의 자취가 있다. 식물과 동물의 정교함을 보라. 그것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며, 번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행성과 위성과 혜성과 별자리들을 보라. 거대한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그 모든 것이 자기 궤도 위에서 운행한다. 모두가 설계자를 요구한다.

셋째 증거는 양심, 곧 도덕성이다.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씀한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사고하며 인격적인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진흙 속의 아메바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답이 아니다.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올 수 없다. 비도덕에서 도덕이 나올 수 없다.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정하셨어야 한다.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양심을 사람 속에 두신 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과학적 증거와 이성적 논증을 아무리 펼쳐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믿는다”는 자리에 서야 한다. 모든 증거는 정황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분을 믿을 때, 갑자기 그 증거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히11:3)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께서 존재하심을 믿었다.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바로 그분을 믿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첫 번째 자취이다.

### 둘째 핵심: 그는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였다

6절은 계속된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편다(약2:19).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 의로운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공의롭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냐 말하였는가? **역대기상 28장 9절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1차적인 보상은 구원,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 죄들의 용서, 영원한 생명, 새 마음, 화평, 기쁨, 사랑, 천국 - 모두 그분 안에 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심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갔다. 그러자 그분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막연한 신인가? 아니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인격적 하나님인가? 에녹은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 셋째 핵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제 에녹의 가장 빛나는 자취로 들어간다. 창세기 5장은 그에 대하여 두 번이나 말씀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22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 그리고 본문 히11:5는 “그는 휴거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녹의 동행은 삼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대 가운데 하나였다.

에녹의 휴거 이후 약 670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5절**이 그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런 부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에녹 시대에도 심히 사악함

**유14-15**,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미 에녹의 시대에도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사악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에녹은 무려 삼백 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 마24:37, “노아의 날들이 어떠한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 지금 시대 다 사악한 자들의 시대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

### ‘동행한다’(같이 걷는다)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 1. 동행하려면 먼저 화해해야 한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두 사람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걸으려면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다는 것은 화합과 합의와 화해를 전제한다.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사람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걸음을 시작한 사람이다.

#### 2. 동행은 본성이 같아야 한다. 맥아더 목사의 예

같이 걷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께 살 수 있는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집에 금붕어를 키우는 분이 계실 것이다. 금붕어와 친구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금붕어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항을 들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금붕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금붕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수도 없다. 본성이 다르기에, 곧 살아가는 영역이 다르기에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맞다. 금붕어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가? 똑같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죄인과 어울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죄인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산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본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베드로후서 1장 4절)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이다. 새로운 영역에서 호홉하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에녹이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다는 뜻이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으로 표현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는 것의 의미: 매사에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결정하는 삶의 연속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하루 종일 하나의 결정 다음에 또 다른 결정이

이어진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그분께 맡기며 사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성령님, 또 하나의 결정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매 순간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멈춰 세우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저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 걸음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요한3서 4절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것”

로마서 13장 13절은 “정직하게 걷는 것”이라 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는 것”이라 한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라 한다. 즉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다.

5장 2절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라 한다.

5장 8절은 “빛의 자녀들로 걷는 것”이라 한다.

5장 15절은 “지혜로운 자들처럼 걷는 것”이라 한다.

이 모든 걸음의 표본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요한1서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걸으셨는가?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며 걸으셨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창세기의 에녹은 그 동행을 삼백 년 동안 하였다. 우리가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어려운 데, 에녹은 삼백 년이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일 성령님 안에서 걷는 자, 매 순간 그분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 거룩함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 자기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자.

**넷째 핵심: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 네 번째 사실은 **유다서 14-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나오는 설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설교였다. 15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ungodly)이 네 번이나 나온다.

에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언자였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있다. 유다서 16절 심판의 대상은 유다 시대 초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다.

4절,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기어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에녹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탄은 그때부터 이미 활동하였다. 거짓 대언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인용문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대언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영감을 주사 에녹이 했던 말을 유다가 그대로 인용하게 하셨다.

이 대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5,000년 전에 주어진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문맥상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 7년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에녹은 자기 시대의 어떤 심판도 보지 못한 채로, 멀리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며 외쳤다. “주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다”

이것이 진정한 대언자의 모습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자. 자기 시대에 영원의 관점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

에녹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심판을 말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러한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를 박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도 에녹의 시대만큼이나 부패하다. 도리어 더 부패하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에녹처럼 진리를 선포하여야 한다. “심판이 임하고 있다. 주께서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다 정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거룩한 자는 자기 가족과 자기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사람이다. 에녹의 믿음은 말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

#### 다섯째 핵심: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

에녹의 모든 일생은 한 가지 결과로 마무리된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곧장 들어갔다. 죽지 아니하고, 무덤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겨졌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였다. 사라졌다. 시신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더욱 명확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이 부패한 세상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의 휴거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 이상으로 보여 준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에는 한 가지 반복되는 선언이 계속 나타난다. “그가 죽었더라.”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었고, 죽음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현실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행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셨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이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증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미리 보여 주신 것이다. 또한 에녹의 옮겨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에녹은 단순히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 준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에녹은 환난 전 휴거의 그림이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지 않고 휴거받음, 우리 성도들도 7년 환난기 심판 이전에 죽지 않고 휴거받는다.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신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산 채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 위로 채여 올라갈 것이다. 이는 노아 가족이 홍수를 통과하기 전에, 한 사람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옮겨진 그 사건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다. 에녹은 환난 전 휴거의 살아 있는 모형이다. 마지막 환난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마지막 세대 전체가 에녹처럼 옮겨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에녹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이다.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그러나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도 결국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게 된다. 죽음의 베일을 통과하든, 휴거의 구름을 통과하든, 모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임재로 들어간다.

#### 결론과 적용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섯 가지로 정리하자.

첫째,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둘째, 그분의 보상을 구하라. 그분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셋째, 구원 뒤에는 그분과 동행하라.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넷째, 그분을 위하여 선포하라. 입을 열어라.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라.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외쳐라. 주께서 오신다.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섯째, 그러면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게 된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받든지 죽지 않고 휴거를 받든지 그분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